출가에서 임종까지…승려 관리 시스템 필요하다

현불논단



설해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2022년 11월 시작된 제18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임기가 올해로 마지막 해를 맞았다. 임기의 끝자락에 서니, 왜 종회의원이 되고자 했는지 돌아보게 된다.

법랍과 나이가 크게 차이 나는 은사 스님과 사형 스님들의 수행과 포교, 불사, 늙음과 병듦, 죽음의 순간까지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승려의 삶을 깊이 생각하게 됐다. 그분들의 삶은 대부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각자도생'과도 같았다.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며 스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교육·수행·포교에 전념하고 노후와 임종에 이르기까지 승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출가에서 임종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승려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첫 주지 소임지에서는 도반 스님들과 매일 아침 경전을 독송하고, 보름마다 비구니계 포살을 봉행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사찰을 만들고자 했다. 전국비구니회 총무국장 소임을 맡아서는 스님과 사찰·기관을 연결하는 '소임 플랫폼'을 구상했고, 비구니 수행공동체를 원하는 사찰을 발굴하거나 연로한 스님과 사찰을 승계할 후계 스님을 연결하는 시도도 해보았다. 그러나 개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종단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종회의원이 되어 이 일을 해보고자 원력을 세웠다.

수행·포교 매진에도 '각자도생' 현실
의료·요양·노후 등 복지, 권리로 보장해야
전담 부서에 소임자 배치, 인력풀 활용도

현재 조계종 소속 승려는 약 1만 명 내외다. 종단 행정은 소속 사찰 관리가 중심을 이루고, 수계·교육·안거·법계 관리 외의 영역은 대부분 자율에 맡겨져 있다. 교육을 마친 뒤 소임지는 스스로 찾아야 하고 소임이 끝나면 거주처도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 스님들에게 소임지는 거주처이기에, 거주·노후·임종에 대한 불안은 수행과 포교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원력과 이를 전하고자 하는 발심은 불교 중흥의 동력이자 종단 운영의 토대다. 이 토대가 약화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해법은 분명하다.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 승려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교육·수행·의료·요양·노후·임종에 이르는 복지는 권리로 보장하고, 수계와 법계, 교육과 수행 이후의 포교와 소임은 의무로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교구 중심으로 운영해 교구본사가 소속 승려를 책임 있게 관리할 때, 안정적인 종단 운영과 불교 중흥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엔 승려 수가 많아 관리가 어려웠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승려 수가 감소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한층 수월해졌다. 각 교구에 전담 부서를 두고 소임자를 배치한다면 승려들은 교육·수행·복지의 권리를 보장받는 동시에 소임과 포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교구별 인력풀을 활용해 사찰 관리와 주요 소임자 임용도 더욱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출가한 스님들이 종단의 보호 속에서 교육받고, 각자의 원력에 따라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며, 스님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노후를 보내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완비되기를 바란다. 필자 또한 남은 임기 동안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스포츠는 어떻게 수행의 언어가 되는가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 선수는 경기 주인공을 넘어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주체로 기능한다. 그들의 플레이와 인터뷰, 훈련 방식, 삶의 태도는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며 스포츠 팬을 넘어 일반 대중의 가치관과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스타 선수는 삶의 방식을 전달하는 상징적 매개자라 할 수 있다.

미국 농구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는 하나의 문화적 메시지가 된 대표적 사례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NBA로 직행해 20년 동안 LA 레이커스 한 팀에서만 활약하며, 다섯 차례의 챔피언십 우승, 파이널 MVP 두 차례, 정규시즌 MVP 한 차례, 올스타 18회 선정이라는 눈부신 기록을 남겼다. 한 경기 81득점이라는 전설적인 성과는 그의 기량을 상징하지만 대중이 그에게서 읽어 낸 의미는 단순한 기록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실패한 날일수록 연습량을 늘리고 완전한 몰입과 집요한 성장을 추구한 그의 태도는 '맘바 멘탈리티'란 이름으로 미디어를 통해 널리 확산됐다. 은퇴 후에도 그는 교육과 스토리텔링의 영역으로 활동을 확장하며 일관된 삶의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사후에도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팬들의 언어와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특정한 구호라기보다 하나의 삶의 원칙에 가깝다. 그것은 기분이나 환경

코비 브라이언트, 실패 시 연습량 늘리고
성장 위해 매일 단련하는 태도, 정진 같아
다짐보다 실천으로 어제의 나를 넘어서길

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 스스로를 단련하는 태도다. 그는 "동기는 오래가지 않지만 규율은 남는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훈련과 태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결과보다 과정의 밀도를 중시했으며,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회피하지 않았다. 특히 그가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알려진 "오늘 하루, 단 1%라도 더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러한 태도는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정진(精進)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정진은 일시적인 노력이나 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행위를 꾸준히 닦아 가는 지속적 실천을 의미한다. 또한 불교는 실패를 고통으로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통 그 자체를 수행의 재료이자 통찰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수행의 조건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그의 삶의 태도와 불교 수행은 깊은 공명을 이룬다.

물론 두 세계의 지향점은 다르다. 한 농구선수의 삶의 태도가 세속적 영역에서의 완성을 향한다면, 불교 수행은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인의 길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럼에도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태도가 대중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이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세우지만, 그 다짐은 종종 오래가지 못한다. 거창한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실천이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무엇을 조금 더 닦았는가. 오늘의 삶은 어제보다 단 1%라도 나아졌는가. 스포츠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는 우리에게 새해 다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행 언어를 건네고 있다.

社 說

원력은 간절하게 결정은 신중하게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천일기도가 1월 21일 1차 회향하고, 22일 2차 입재했다.

통일신라시대 8세기 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은 2007년 쓰러진 모습으로 발견됐다. 부처님 코끝과 바닥의 거리가 불과 5cm에 불과한 상태에서 상호가 온전히 보존돼 '5cm의 기적'으로 불린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7대 총무원 집행부 출범과 함께 '마애불 바로 모시기'를 핵심 종책 사업으로 삼고 천일기도와 모의실험 등을 진행해 왔다.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이 곧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뜻에서다.

이러한 원력을 담은 천일기도는 2023년 4월 28일부터 전국 210여 개 사찰과 단체, 2만5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1월 21일 회향했다. 혹서와 혹한에도 이어진 기도는 열암곡을 다시 한 번 살아 있는 수행 도량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곧이어 2차 기도에 입재해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염원을 이어간다.

조계종 37대 집행부 핵심 사업으로 추진
올해 입불 여부 결정…안전한 보존 기원

그러나 이 불사가 순탄치만은 않다. 불상 무게는 약 70~80톤에 이르고, 과거 지진으로 최소 13개의 균열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불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또 하나의 무거운 책임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 때문에 국가유산청과 경주시, 경상북도, 관련 연구기관들은 수년에 걸친 정밀 조사와 실대형 모의실험을 진행해 왔다. 110톤 규모의 모형을 제작해 30㎝ 양중에 성공한 최근의 실험은 '제자리에서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단은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 진우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입불이 목표이되 문화유산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정밀 조사 결과에서 입불이 불상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한 채 안전한 참배와 예경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결코 후퇴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보를 대하는 불교의 책임 있는 태도이자, 미래 세대에 온전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

불교는 언제나 '방편'의 종교였다.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물리적 입불로 실현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감동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부처님답게 모시고 공경하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 담긴 원력과 책임, 그리고 공동체적 합의다.

올해는 진우 스님의 임기 마지막 해이자 열암곡 마애부처님의 입불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한 시기다. 천일기도가 다시 시작된 지금, 우리는 간절히 발원한다. 과학과 신앙, 행정과 수행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가장 지혜로운 결론에 이르기를. 입불이 가능하다면 부처님을 온전히 바로 모실 수 있기를. 입불이 어렵다면 지금의 모습 그대로라도 천년, 이천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존엄하게 보존되기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1월 28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1월 2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1월 2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70년(2026) 1월 28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